

시선

사설

대학가 덮친 코로나 위기, 정부가 지원 나설 때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다. 지난 26일 서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위해 등록금책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다.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다.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1만 4,785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강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응답자의 85.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으당 누려야 할 교육의 질적 하락에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대학도 곤혹스럽다. 개강을 2주 연기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까지, 모든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위기도 겹쳐졌다. 코로나 사태로 유학생 수가 줄면서 재정은 한층 더 악화됐다. 비대면 수업 마련, 시설 방역, 추가 인건비 등 예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재난 수준인 코로나19의 거센 풍파에 대학도 휩쓸려 갈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 단순히 소통만으로 이번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란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는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터져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이에 대학은 비대면 수업 체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벌지 못했다.

형성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강의 앞에서 학생들의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재정 상황과 아울러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학이 학생

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중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해당 갈등의 소관이 대학에 있다며 선긋기에 급한 모양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기 대응은 정부의 주된 역할 중 하나다. 대학가로 번지는 코로나 위기에 정부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의 비대면 수업 권고는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의제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국가적 사태를 빚은 코로나19로 인한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등록금 반환 갈등은 이제 겨우 시작일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썩든 수많은 갈등이 대학가에서 머리를 내밀려 하고 있다. 학생 교육의 질적 하락, 대학의 재정 부담, 비정규직 임금 축소 등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현재 대학가는 재정 지원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역량이 절실하다. 사회 대부분의 이슈는 결국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 대학가의 현 갈등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정책과 같은 형태도 좋을 것이다. 대학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 감면분을 직접 충당해달라는 목소리도 고려해볼 법하다. 위기에 빠진 대학가를 구할 정부의 손길을 기대해 본다.

만평 - 코로나19, 이해와 배려 그리고 존중이 답



두 개의 독, 해독제는 ‘끝까지’

세시봉

김지원 <편집장>



사회를 쪼먹는 독(毒)이 두 가지씩이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최근 신문 지면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와 ‘n번방 사건’이 그것이다. 이 둘을 주제로 세시봉 원고를 준비하던 중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다른 두 사안에 실은 같은 해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끝까지’ 쫓아 그 모두에 존재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뿌리째 뽑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

이질적인 두 이슈의 동질성은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무생물체와 생물체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독으로 증식하지 못하고, 돌연변이의 출현이 잦다는 점은 각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바이러스는 숙주 감염 이후에만 증식할 수 있어 감염 이전 상태에서는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 돌연변이 발생이 잦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완전한 증식을 위해선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바이러스는 혼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감염과 확산을 통해 힘을 발휘하며, 시시각각 변화함으로써 숙주에 지속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코

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은 그래도 희망적이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로 희생에 가까운 헌신을 보여주는 의료계 종사자들 덕분이다. 행정과 현장의 조화가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슨 n번방 사건의 상황은 다르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감염자 즉, 이용자를 통해 힘을 발휘하고 무차별적으로 자기 복제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만 종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제가 사라진지 오래인 이 사회에서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는 성 착취 동영상을 두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은 더러 그럴 수 있다”는 몇몇 국회의원의 가벼운 답변은 마음에 밟힌다.

국회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

“
혼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감염과 확산을 통해 힘을 발휘하며
시시각각 변화함으로써 숙주에
지속적인 공격을 가한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취재수첩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팼가 황폐화된 지구를 대신할 행성을 찾아 미지의 우주로 떠나기 전 브랜드에게 전한 대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행성에서 발생한다 사고였다. 경험해본 적 없던 상황에서 답을 찾기 위해 등장인물간 이해관계는 더 강하게 충돌했다.

27일 기준 한국에서만 9천여 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는 139명에 달했다. 세계적으로는 51만여 명이 감염됐고 2만 3천여 명이 사망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1일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학교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개강과 비대면 수업이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됐고 종강 역시 1주일 가량 미뤄졌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두 달여 동안 결정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더 이상 학사일정

변동이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조차 코로나19의 안정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며 우리학교 역시 안갯속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새 학기’, ‘신입생’ 등 설렘으로만 여겼던 단어들이 새삼 다르게 느껴지는 봄이다. 처음 코로나19와 관련한 취재를 시작했을 때의 나 역시 그랬다. 처음 맞는 것은 낮설고, 낯선 환경은 모두를 예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꼭 지금, 우리가 맞는 봄처럼 말이다. 기자이면서도 어쨌든 학생이기에 변동되는 학사일정을 보며 ‘개강이 연기되면 종강도 연기가 되는 것인가?’, ‘비대면 수업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학생으로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원망하기도 했다.

취재를 지속하며 이는 비단 나 혼자만의 예민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학생은 물론 교원과 직원 모두 신경이 곤두선 듯 보였다. 학생은 거듭되는 학사일정 변동과 낯선 비대면 수업에 불안과 불만을 토로했다. 교원 역시 빗발치는 학생 메일과 낯선 비대면 수업 플랫폼 적응에 먹고 있었다. 직원들은 끊임없는 문의와 항의,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업무에 시달리는 중이었다. 초유의 상황

니다. 입법 현장 속에 국민의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사건이 주는 충격과 분노가 큰 만큼 행정과 현장의 부조화가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운영자 뿐 아니라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라틴어로 바이러스는 ‘독(poison)’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 말을 증명하듯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감염자는 50만 명,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과연 재난 수준의 감염률을 가진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빠르게 잠식해나가고 있다. 디지털 사이버 범죄로서 사회적 바이러스라 칭할 만한 n번방 사건의 가입자는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되는 계정을 고려해도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역시 역명의 그늘 아래서 사회가 나아간 자리를 반의반 보씩, 한 보씩 잠식해 왔으리라. 정작 자신들은 존중할 줄 몰랐던 인간 존엄과 그 위에 썩든 인권으로, 다시금 모양을 바꾼 돌연변이가 되어, 최근 이 두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때로는 분노와 슬픔, 또 어떤 순간에는 무력함 속에 놓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부디 ‘끝까지’ 쫓아 두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음 맞이하는 봄은 마냥 따뜻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속에서도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려 애썼으나 모두가 예민했기에 서로의 태도를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다. 학생에서 한 발 물러나 모두의 속사정을 들은 기자로서 바라보자니 더없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앞서 이야기했듯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주비행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주를 떠돌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주에서 그들은 각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직면한 문제의 해답에 다다른다. 그들이 마주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열쇠는 결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다. 각자의 노력을 연결했던 이해와 배려, 존중이 그것이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도 불만과 원망보다는 우주비행사의 열쇠로 답을 찾을 수 있다. 경희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다. 학생은 학업에, 교원은 수업에 임했고 직원은 그들을 지원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 모든 노력을 연결할 이해와 배려, 그리고 존중이 더욱 필요하다. 모두에게 낮설고 불편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모두의 노력이 단단히 연결될 수 있다면 이 안갯속에서도 기자는 확인할 것이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고.